

경주서 APEC 첫 관문 열린다

SOM1 사전회의 만반의 준비

경북도·경주시 '리허설 성공' 만전
본회의 참가국 대표단 2천명
24일부터 HICO서 100여회 회의
최고급 회의실·셔틀버스 운행
AI 안내 및 통역·상시 의료 지원

10월 말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오는 24일부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일원에서 열린다.

각국 대표단 등 2천여명이 참가해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의 첫 인상을 각인하기 위해 SOM1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SOM1은 정상회의 개최 전 경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사전회의로, 정상회의 의제 전반을 다루며 실질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핵심협의체다. 개최국 입장에선

정상회의 사전 준비나 예행연습의 성격도 지닌다.

도와 시는 SOM1이 경주와 경북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각국 대표단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실 인프라 구축과 수송, 숙박, 의료 지원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HICO 내 영상 프로젝터를 국제 회의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영상시설로 교체하는 등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의 입·출국을 비롯한 회의 참석 편의, 저녁 시간대 개인 활동 보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꼼꼼한 교통계획도 수립했다.

수송거점인 김해공항·경주역에서 숙소·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각각 30분, 1시간 단위로 운행한다. 숙소와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기본 30분 단위로 배차하고 회의 시작·종료 시간대는 15분 단위로 운행하기로 했다.

대표단이 묵을 호텔 5곳에는 자원봉

사자가 상주하는 전용 안내데스크 설치, 통역·교통안내·관광지 소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회의장 안에는 의무실을 설치하고, 인근 동국대경주병원·울산대병원 등 10개 전담협력병원을 운영해 상시 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18일 시연회를 마친 인공지능(AI) 기반 종합안내 서비스 기기는 회의장과 수송 거점, 숙소 등에 배치돼 각국 대표단에 편의를 제공한다. 이 기기는 실시간 통역 서비스 기능 등도 탑재돼,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경주 홍보관 ▷K뷰티존 ▷5한(5韓, 한글·한자·한옥·한복·한식) 콘텐츠 체험 시설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한류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현장간부 회의를 열고 SOM1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양승진 기자 promotion@imaeil.com

“APEC 고위관리회의 성공 개최” 봉사자 발대식

경북도는 20일 경주시 신평동 경북문화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응원 영상을 상영하고, 봉사자 간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힙합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자원봉사자 200명은 ‘우리의 다짐’ 선서를 낭독하면서 SOM1 성공 개최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북도가 최근 제작 발표한 유니폼을 입었다. 옛 신라 의복 형태로 디자인해 눈길을 끌었다. 디자인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강미자, 박순라 한복 명장과 인공지능(AI) 협업을 이끈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도 발대식에 참석했다.

자원봉사자는 영어 능통자, APEC 회원국 언어 구사자, 국제회의 경험자로 구성했다. 입출국 지원



20일 경북 경주시 신평동 경북문화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축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과 수송, 숙소, 관광, 회의 지원 등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 출신 외국인 23명도 포함됐다.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가해 경주의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

여야정 국정협의회, APEC 준비 국회 특위 구성 합의

현안별 입장차, 추경 추후 논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 각종 현안에는 이견을 보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오후 5시 국회 사랑재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후 첫 국정협의회가 약 2시간 동안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국회 APEC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APEC 특위는 행사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수월하게 하고, 국가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정협의회는 국회 윤

리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기후특위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서 극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으나, 야당은 "기존 예외제도가 상당히 많다"며 반발했다. 연금개혁도 여당은 '특위 구성 후 모수 개혁 등 논

의'를,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서 모수 개혁 우선 처리 후 특위 구성'을 각각 밀어붙이며 팽팽선을 달렸다.

추경 편성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를 했으나 편성 규모와 대상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돼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좀 안타깝고 아쉽게도 좀 미뤄졌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hine@imaeil.com